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소식

THE NEWSLETTER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발행인 : 유구종

편집인 : 백경순

발행처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405호 유구종 교수 연구실
TEL : 010-3638-2459 / 홈페이지 : www.open33.or.kr
E-mail : openchild33@naver.com

유아교육,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다

임 영 심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생성과 소멸의 변화과정은 당연한 자연현상이다. 자연의 일부 인 인간의 삶과 죽음이 그렇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태계변화과정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는 생성과 소멸의 유형과 그 속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모호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변혁의 시대라 일컫는다. 이는 자연현상의 변화과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 오늘날 직업유형은 크게 변화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 관련업종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으로 모두 대체 될 것인가? 유아교사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 어떤 직업유형으로 대체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 지능화된 인공지능이 초고속 초연결망으로 유아 개인의 특성과 발달정도를 파악하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고 가정해보자. 인공지능은 각 유아의 수업에 적합한 교재와 환경을 계획하고 개별화 수업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 환경을 구성하기위해 보조 로봇에게 명령을 수행하고 로봇은 지시에 따라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유아교사는 더 이상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하거나 그에 적합한 환경구성을 하기 위해 밤새 고민할 필요도 없고, 교재를 구상할 때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유아들

을 위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전산으로 입력되어 있고 유아 개개인의 성향과 발달정도는 교사가 파악할 겨를도 없이 기계적으로 입력되고 분석되며 관리될 것이다. 복잡한 인지활동은 인공지능이 하고 유아교사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순한 보조적 역할 수행이 주된 업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스파이크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에서 주인공 남자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애인 사만다와 데이트를 하고 가상의 애인 '그녀'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만족시켜준다. '그녀' 사만다는 테오도르가 대필 작가로서 그동안 써온 모든 글들 중 좋은 것들만을 골라 편집하여 성공적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의 욕구를 대만족 시켜준다. 오늘날 빅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알파고의 사례를 보면 조만간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의 영리한 영유아들은 누구와 함께 먹고 자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싶어 할까? 자신의 욕구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재빨리 충족시켜주는 인공지능엄마(교사)를 선택할 것인지 가끔은 느리거나 틀린 파악으로 자신을 왕왕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엄마(교사)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많은 직업들이 머지않아 대부분 사라질 것을 우려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엄마'라는 직업은 대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엄마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해 최후 보루로 보장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혁명은 단기적으로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우리가 변혁적 세상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기 어렵고 모호한 현실 앞에 직면해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인류의 운명체적 인식, 공동체적 인식과 상호신뢰의 휴머니즘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엄마나 유아교사의 직업도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라는 경고 또는 우려일 것이다. 초지능화 된 인공지능이 인간 대 인간의 피부접촉 즉, 인간적 사랑을 통한 애착발달과 감성발달까지 담당해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양육과 교육이 기계적 양육과 교육에 의존하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사용하지 않는 인간발달의 영역은 퇴화되기 마련이다. 인간의 감성은 차츰 둔화되어 결국 퇴화될 것이며, 인간은 편의성과 효율성의 법칙에 따라 초고속, 초연결망 사회의 일원이 되어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가상적 공간이 시대적 배경인 로이스 로리의 「기억전달자(The Giver)」라는 소설이 있다. 그 사회에서는 감성적 교감이 없고 사랑과 미움, 갖은 욕망과 불안의 그늘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성, 윤리성 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사랑도 위험도 모험도 없는 늘 편안한 상태 즉 언제나 한결같은 "같음 상태(Sameness)"로 행동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오직 편의성과 효율성에 따라 삶을 영위해나간다. 이 책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풀어야할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도록 유인한다.

오늘날 유아교육분야의 진보적 이론은 근대적 교육풍토에서 일반화되어온 형식적이고 이분법적 사고의 경계를 깨뜨리고 보다 유연하고 다면적이면서 다층적인 탈 근대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에 따라 유아들의 구성적 사고를 지원해주고 문제해결능력을 개발시켜주는 다양한 개별화교육과

소집단 교육프로그램과 접근법이 개발되어왔다. 그러나 학문적 노력과 결실들과 정부정책의 조화로운 작동은 한계가 많아 보이고 현실적 진보는 늘 구호만 난무한 채 빛바랜 모호성 속에 갇혀버렸다. 암울한 현상들은 언제까지 지속가능할까? 돈탭스콧은 저서「블록체인혁명」에서 미래진보의 긍정적 관점을 조망한다. 신뢰를 잃은 관료주의와 부패는 자연스레 퇴화될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혁명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함을 예측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 공개거래장부인 미래의 전도유망한 거대한 디지털 기술 즉,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분산화 된 장부를 나누어가짐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는 변혁적 시대,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 정직, 배려, 신뢰, 투명성을 꼽는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위해 뭔가를 누락해 거짓을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복잡하게 꼬아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정직함, 타인의 감정을 순수하게 존중하고 서로를 향해 선의를 갖고 움직이는 배려심, 개인과 기관 모두 자신의 약속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어그러진 약속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감, 겉을 치장하기보다 민낯을 드러내는 투명성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 같은 시대적 덕목은 재분배자본주의를 넘어 분산자본주의로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 한다. 유아교육분야 역시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둘러싼 다양한 보육·교육 기관과 관련부처, 인프라 사이의 정보 이동이 아직 충분히 투명화 되지 못한 영역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모든 관련 주체들이 교육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짐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교육민주주의 시대가 도래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진정한 교육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유아교사는 다가올 변혁적 시대의 문턱에 서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역동적이고 구성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4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지한 것을 잘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인 상황맥락지능(정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에 해당하는 정서지능(마음), 변화를 이끌고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을 활용하는 능력인 영감지능(영혼), 개인에게 닥칠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인 신체지능(몸)이 그것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분야에서 이런 종류의 역량의 필요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교육목표이자 개발되어야할 능력들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특성은 선형적이기보다 비선형적이면 단면적이기보다 다면적이며 역동적이라는 것 또한 잘 인식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그러한 인식의 중요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유아교육의 건전한 향방과 인류공동의 안녕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자각으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유아교사는 정직, 배려, 신뢰, 투명성에 기반 한 상호 호혜적 교류를 할 수 있어야할 것이며,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더 가슴 벅찬 열정으로 정신, 마음, 영혼, 몸을 위한 시대적 역량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학 회 활 동 보 고

1. 하계학술세미나 개최

일 시: 2017년 8월 19일(토) 15:00-17:30
장 소: 미란다호텔 로즈마리홀(2층)

사회: 배정호(백석문화대학교)

주제발표 1. 철학 분과 연구회
'교육철학적 관점에서의 유아교육 방향'
/ 발표: 이병래(중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프로그램 분과 연구회
'핀란드 유아교육 방향과 교육프로 탐색'
/ 발표: 정정희(경북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교수법 및 교수매체 분과 연구회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스마트활용 사례'
/ 발표: 김민경(강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진행: 최철용(강동대학교 교수)

2. 2017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일 시: 2017년 11월 4일(토) 08:30-16:1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제 1 부 사회: 양진희(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의 과제와 전망'
/ 발표: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한국법인권교육학회 전회장)

주제발표 1. '영유아 인권의 본질과 법적 조명'
/ 발표: 나달숙(백석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영유아 인권교육의 방향과 실제'
/ 발표: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 2 부 사회: 나성식(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국내외 영유아 인권사례와 영유아의 놀 권리'
/ 발표: 주혜영(산내들생태어린이집 원장)

종합토론 / 김규수(좌장, 원광대학교 교수),
임재택(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
김현정(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나달숙(백석대학교 교수),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라(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 회장)

3. 동계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일 시: 2018년 2월 3일(토) 14:00-17:2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208호

사회: 정상녀(동강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한 교수법'
/ 발표: 신종우(신한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아동교육철학분과 연구회
'유아교육에서의 경험'
/ 발표: 나성식(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교육과정분과 연구회

'텐트 놀이에 나타난 유아들의 이야기'

/ 발표: 홍순옥(경성대학교 교수),
박선영(경성대학교)

종합토론 / 진행: 박용석(안양대학교 교수)

정기총회 / 진행: 정정희(경북대학교 교수)

4. 통합분과세미나 및 통계특강 개최

일 시: 2018년 4월 7일(토) 14:10-17:5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03호

사회: 배정호(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아동교육철학분과 연구회

'니일 아동교육사상의 아나키즘적인 성격'

/ 발표: 박용석(안양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공감적 이해에 기초한 유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발표: 임영숙(광주효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통계특강.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의 실제

/ 발표 강병재(경동대학교 교수)

5. [총무부] 열린유아교육연구 논문 발행 저작권 수입보고

2017년도 열린유아교육연구 학술지 저작권 수입으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학회지인 열린유아교육연구를 사랑해주시고 사용해 주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총무부/편집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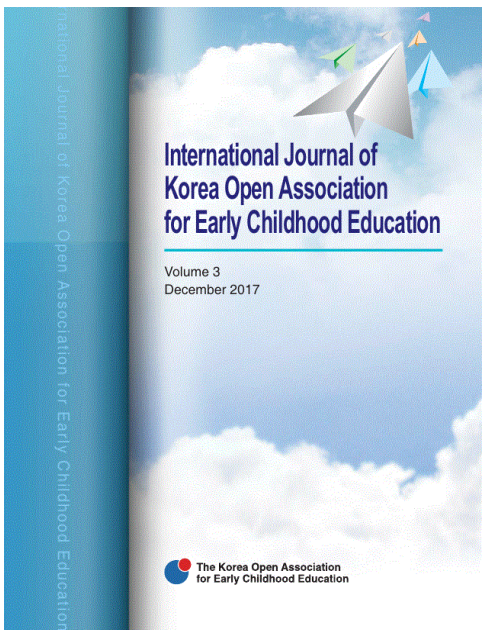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850만원을 지원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술지 발행 지원금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유통을 통해 학회의 학술 활동 활성화 및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 International Journal Volume 3 발간

2017년 12월 30일자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ume 3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는 학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열린유아교육연구와 더불어 국제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 원 동 정

1. 강릉원주대학교 유구종 교수

제4회 중국 유아교육 연회(4th China Childhood Education Conference, 2017.11.24-25)

주제강연 1. "Application of multi-media and apps in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주제강연 2. "Appl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2. 동강대학교 정상녀 교수

수상 :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수상

- 전문대학교 NCS기반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며 고등직업교육기관 역할 제고

3. 전남과학대학교 오세경 교수

임용: 전남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용

4. 델라웨어주립대학교 김근규 교수

아버지교육개론(성균관대학교출판부) 출판

학 회 공 지 사 항

1. 2018년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예정)

본 학회에서는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 자연, 인간, 과학기술의 만남! 그리고 미래 영유아 교육
일시: 2018년 5월 12일(토) 08:30~16:30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제 1 부 사회: 한종화(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 미래교육의 방향'
/ 발표: 최재붕(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과학기술 시대와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
/ 발표: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실장)

주제발표 2. '과학기술 시대와 미래 영유아교육 현장'
/ 발표: 오세경(전남과학대학교 교수),
유나영(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교사),
유구종(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제 2 부 사회: 이신영(세한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
/ 발표: 이병래(중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의 현장'
/ 발표: 김지은(하리숲학교 교사),
정대현(총신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진행: 곽노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석광우(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2. 201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가입비: 10,000원 (일반, 기관회원 공통)
* 연회비: 일반회원 50,000원 /
기관회원 60,000원(연 1회 납부)
* 평생회원: 400,000원 (40세이상)
* 신입회원인 경우는 가입비: 10,000원
(일반, 기관회원 공통)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351-0933-1140-13
  예금주: 유구종(열린유아교육학회)

* 참고사항:
  1) 연회비는 3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이며, 3월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학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학회지 원고 모집

「열린유아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논문투고 마감일	전년도 11/30	01/31	03/31	05/31	07/31	09/30
학회지 발행일	02/28	04/30	06/30	08/31	10/31	12/31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3권 4호에 원고를 투고하실 분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심사본 원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 바랍니다. 논문투고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고방법**

1) **온라인 투고 시스템**
학회홈페이지(www.open33.or.kr)의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이용

2) **e-mail:** openhelper@hanmail.net
openeditor1516@gmail.com

(상기 e-mail로 2곳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 **주소:** (27909)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유아교육과
양진희교수 연구실
* **Tel:** 010-8875-8018 박지예 간사

*** 논문투고 계좌번호**

농협 302-1167-9363-71 예금주: 양진희

- 기타 관련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